

사계절 무한대의 활강적인 골프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당첨후환영I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 320-7700



◀ 이대진

‘李-李 콤비’ 마운드 새 활력

대진 범석



‘KIA 마운드 재 정비 안비’

KIA 타이거즈가 7월 대도약을 위한 마운드 정비를 마무리 했다.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윤석민·이대진이 마운드에 가세했고, 시즌 초반 구멍난 마운드를 메우기 위해 대타로 나섰다

가 선발지리를 꿰찬 이범석은 지난 4일 삼성을 상대로 생애 첫 완봉승을 기록하며 KIA 마운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지난달 15일 SK전에 첫 선을 보인 디아즈는 5경기에서 4.15의 평균자책점으로 승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한국무대 연착륙에 성공했고, 남은 선발 한 자리에는 KIA의 ‘아심작’ 새로운 용병 데이비스가 들어섰다.

이처럼 주전들의 부상과 이탈로 주먹구구식으로 꾸러나가던 선발진이 자리를 찾아가면서 7월 대도약을 위한 마운드 정비는 완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최강 원투 펀치로 꼽히던 신예 윤석민과 노련미의 서재응 조합 대신, 이범석-이대진이 신구

‘노장’ 이대진 시즌 첫 2연승 쾌투

프로 4년차 이범석 생애 첫 완봉승

7월 대도약 노린 ‘新舊’ 활약 기대

(新舊) 에이스 콤비로 급부상하면서 멀어져 가던 4강행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위기에서 빛난 건 역시 노장의 힘이었다.

지난달 26일 한화 다이내믹스 타선을 5이닝동안 4피안타로 잠재우면서 팀 5연패의 사슬을 끊고, 꺼져가던 4강 불씨를 살렸던 이대진이 지난 3일 우리전에서 6이닝동안 2피안타로 1실점하며 시즌 처음으로 2연승 중이다.

6월 마지막 경기였던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 9회 4-5로 허무한 역전패를 당하며 침체 모드에 빠졌던 KIA는 이대진의 호투로 2연패를 끊고 지난 5일까지 3연승 행진을 펼쳤다.

시한폭탄 같은 KIA마운드는 5번의 클리트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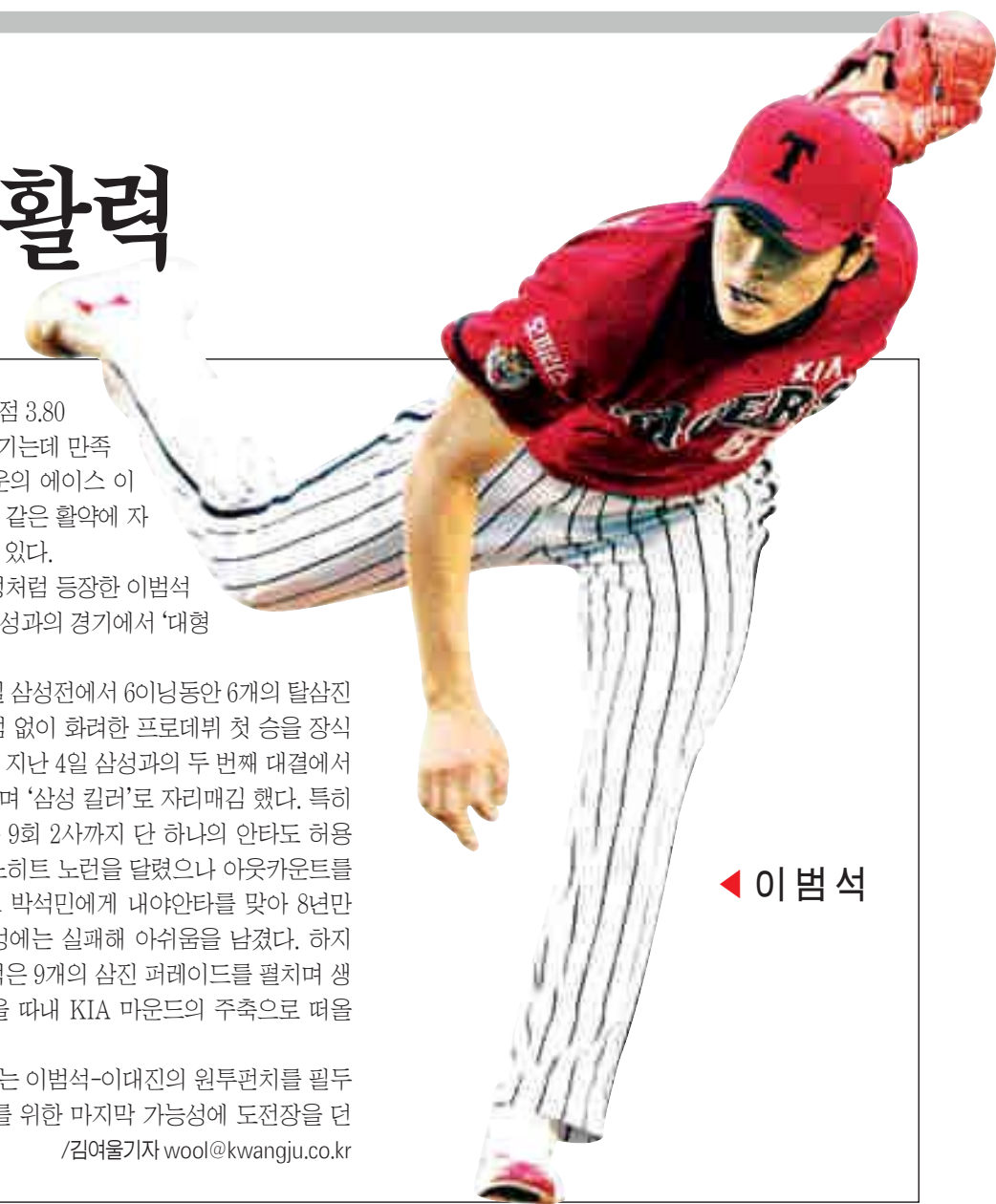
트와 평균자책점 3.80

으로 4승을 챙기는데 만족해야 했던 불운의 에이스 이대진의 감초와 같은 활약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 시즌 핵심처럼 등장한 이범석은 지난 4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5월 7일 삼성전에서 6이닝동안 6개의 탈삼진을 뽑으며 실점 없이 화려한 프로데뷔 첫 승을 장식했던 이범석은 지난 4일 삼성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삼성 킬러’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이날 이범석은 9회 2사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으며 노히트 노런을 달렸으나 아웃카운트를 하나 남겨놓고 박석민에게 내야안타를 맞아 8년만의 대기록 달성에는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날 이범석은 9개의 삼진 퍼레이드를 펼치며 생애 첫 완봉승을 따내 KIA 마운드의 주축으로 떠올랐다.

KIA 마운드는 이범석-이대진의 원투펀치를 필두로 ‘가을잔치’를 위한 마지막 가능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범석



이미나 12언더 선두 안젤라 박 1타차 추격

LPGA NW아칸소 챔피언십 2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P&G뷰티 NW아칸소 챔피언십이 한국자매들끼리 우승 경쟁을 펼치는 대회가 됐다.

6일 아칸소주 로저스 피너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이미나(27·KTF·사진)가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선두로 나선 가운데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0·LG전자) 등 한국자매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버디 8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인 이미나(27·KTF)는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선두로 나서 LPGA 투어 개인통산 세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브라질교포 안젤라 박은 코스레코드를 10언더파 62타를 때려내 선두에 1타 뒤진 11언더파 133타로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안젤라 박의 이날 타수는 올 시즌 LPGA 투어 18홀 최소타 기록과 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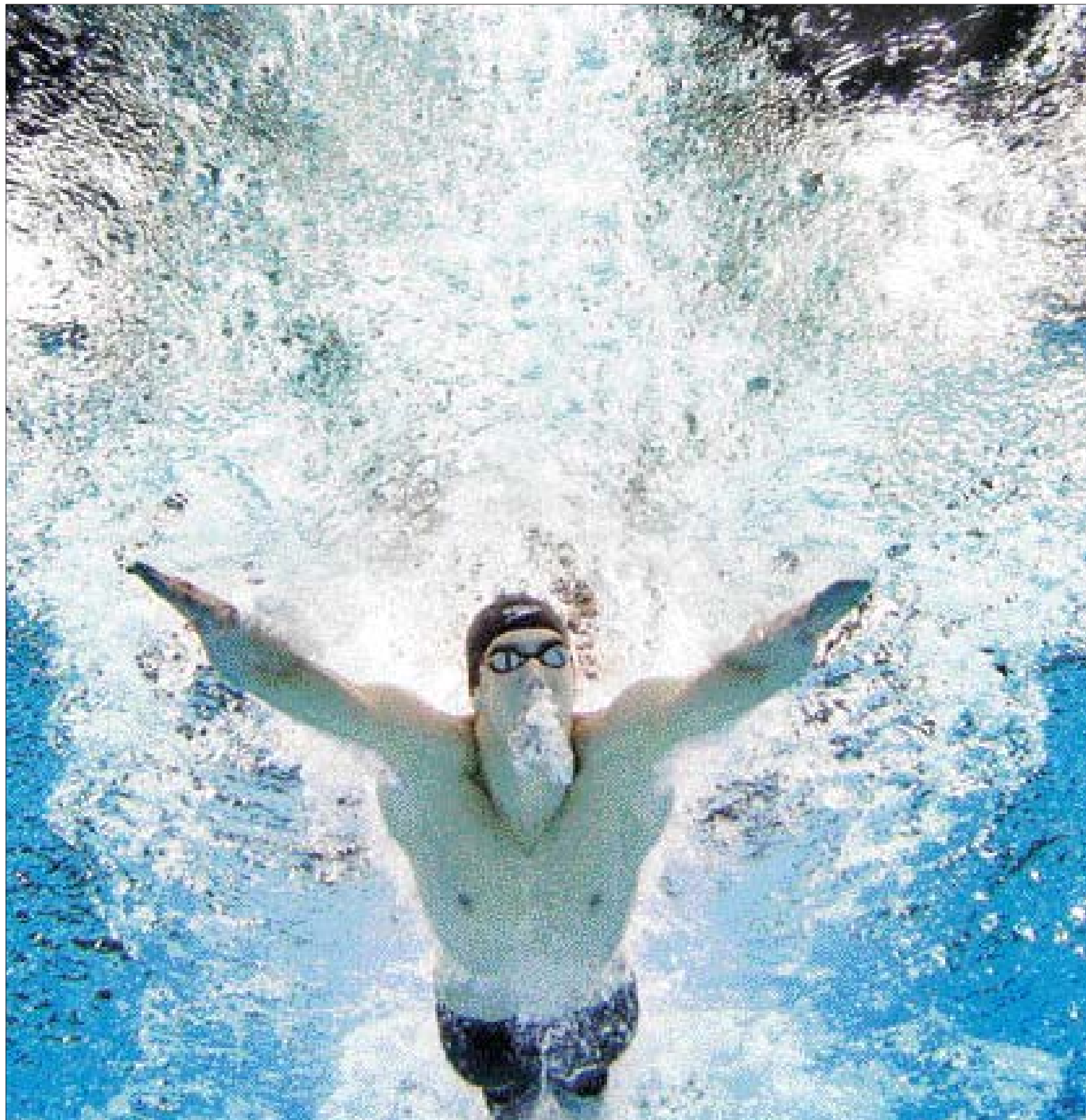
일몰로 인해 2라운드 경기를 다 끝내지 못했지만 지은희(22·힐라코리아)가 16개홀을 돈 뒤 7타를 줄이며 역시 12언더파를 적어내 시즌 두번째 우승컵에 도전한다.

16개홀을 돈 이선화(21·CJ)는 11언더파로 안젤라 박과 공동 3위에 자리했고 장정(28·기업은행)과 이지영(23·하이마트)도 9언더파 135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소렌스탐, 스킨스게임 오초아 제압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스킨스골프대회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압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소렌스탐은 6일(한국시간) 멕시코 엑스타파에서 열린 스킨스게임에서 11개의 스킨을 따내 16만5천달러를 가져갔다. 오초아는 10만5천달러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6일 오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 남자 접영 100m에서 역영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호엘처 女배영 200m 세계新

펠프스 접영 100m 우승...美 선발전 5관왕

마거릿 호엘처(25)가 여자 배영 200m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했다.

호엘처는 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 여자 배영 200m 결승에서 2분06초09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호엘처의 이 기록은 커스티 코벤트리(짐바브웨)가 지난 2월 작성한 2분06초39의 기존 세계 기록을 0.3초 앞당긴 것이다.

호엘처에 이어 엘리자베스 베이슬이 2분06초92에 2위로 골인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접영 100m 결승에서 50초89로 우승하며 이번 선발전 5관왕에 올랐다. 2위는 세계 기록(50초40)

보유자인 이언 크로커(51초62)였다.

펠프스는 접영 100m를 포함해 개인혼영 400m와 자유형 200m, 접영 200m, 개인혼영 200m까지 5개 개인종목에서 출전권을 확보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여자 자유형 800m에서는 ‘여자 펠프스’ 케이티 호프가 8분20초81로 우승했다. 호프도 개인혼영 200m와 400m, 자유형 400m, 자유형 200m에 이어 5번째 출전권을 획득했다.



앤서니 김 7언더 3타차 선두 추격

PGA AT&T내셔널 3R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내셔널 3라운드에서 선두 추격을 계속했다.

시즌 두번째 우승을 노리는 앤서니 김은 6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공그레셔널골프장 블루코스(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했다.

전날 공동 3위였던 앤서니 김은 중간합계 7언더파 203타로 공동 6위로 밀렸다. 하지만 10언더파 200타를 친 단독 선두 톰 퍼니슈 주니어(미국)와는 3타차에 불과해 역전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9언더파 201타로 2위, 토미 아머 3세(미국) 등이 8언더파 202타로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했다.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선두 추격에 나선 앤서니 김은 후반 아이언샷이 흔들리면서 보기를 3개나 했지만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 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었다.

작년 대회 우승자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보기 3개, 버디 2개로 1타를 잃어 중간합계 이븐파 210타로 공동 45위까지 밀렸다.

임창용 시즌 20세이브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수호신 임창용(32)가 시즌 20세이브를 달성했다.

임창용은 6일 히로시마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카프스와 방포 경기에서 5-3으로 앞선 9회말 팀의 4번째 투수로 등판, 4명의 타자를 맞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세이브를 따냈다. 임창용은 이로써 일본 진출 32경기만에 20세이브를 달성하며 선동열(전 주니치)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에서 20세이브를 달성한 한국프로야구 출신 투수가 됐다.